

위례신사선 삼전역 추가 신설에 관한 청원

제안 설명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송파구 제3선거구 출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장님과 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소개한 「위례신사선 삼전역 추가 신설에 관한 청원」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위례신사선 노선은 위례동에서 가락시장을 거쳐 헬리오시티(104역)~학여울(105역)~신사역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정된 11개 정거장의 역 간 평균 거리는 약 1.4km입니다.

가장 짧은 구간은 삼성역과 봉은사를 잇는 106역과 107역 구간으로 505m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헬리오시티와 학여울역 사이를 잇는 104역과 105역 사이 구간은 무려 3.2km가 넘습니다.

아쉽게도 이렇게 긴 구간 사이에 정거장 하나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계획대로라면 지리적 여건상 104역(헬리오시티)은 해당단지 입주민만 이용 가능할 뿐 삼전동, 잠실동, 석촌동 주민들은 이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위례신도시에서 송파구 가락시장을 거쳐 강남구 신사동으로 이어지면서 환승역을 두루 포함하고 있는 위례신사선에서 삼전동과 석촌동, 잠실 본동·2·3·7동 주민들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송파구는 최근 위례신도시를 비롯하여 문정지구, 오금 보금자리지구, 헬리오시티, 거여·마천지구, 잠실운동장 MICE단지 등 지역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거나 예상되고 있어 교통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전동과 잠실본동은 교통여건이 불편한데다가 빌라, 연립주택과 같은 다세대주택에 6만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밀집해 살고 있어 교통수요도 매우 많습니다.

위례신사선 가칭 '삼전역' 유치는 열악한 교통환경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온 삼전동과 석촌동, 잠실 본동·2·3·7동 지역주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숙원사업입니다.

104역(헬리오시티)과 105역(학여울역) 사이 즉, 탄천1교 하부에 ‘삼전역’이 반드시 추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삼전역’을 추가 신설하면 사회적 경제적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현재 잠실지역 주민들은 지하철 3호선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삼전역이 신설되면 삼전동과 잠실 본동·2·3·7동 주민들의 강남권 접근성과 3호선 환승이 매우 편리해집니다.

둘째, ‘삼전역’에서 9호선 환승이 가능함으로써 9호선과 위례신사선의 경제성이 높아집니다. 위례, 강남, 잠실지역이 지하철로 하나의 권역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우수지, 변전소, 기동대 등 기피시설로 많은 불편을 겪어온 잠실본동 주변 주민들이 지하철 환승혜택을 볼 수 있어 사회적 불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탄천으로 단절된 강남구와 송파구의 교통여건이 개선됩니다.

다섯째, 잠실종합운동장 MICE단지 개발 등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교통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유지 매입의 문제점과 지리적 여건상 출입구 설치가 어렵다면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고 9호선 삼전역과의 사이에 연결통로를 만들면 됩니다.

위례신사선 '삼전역' 신설 요청장소에서 9호선 삼전역과의 거리가 약 350m에 불과하고 직선거리여서 무빙워크 설치도 용이합니다.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삼전역' 신설로 공사기간이 늘어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지만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는 가운데 삼전역 환승 연결통로만 설치한다면 결코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10년, 50년을 내다보는 교통정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연결통로를 만들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연결통로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장기간 계획하고 어렵게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새로운 노선의 혜택을 보다 많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위례신사선 '삼전역' 추가 신설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본 청원을 채택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